

전통과 문화적 동의

Tradition and Cultural Consensus

PLATFORM

李廷根 / 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by Lee, Jeong - Keun

1. 전통적자아와 근대적자아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전개로 전국적인 인구분포의 재구성과 산업구조의 개편 등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던 기존의 전통적인 생활공동체는 해체되어야만 했다. 생활에 요구되는 새로운 필요의 수용은 생활공간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생활환경의 구성에 있어 불가피하게 계속되는 변화의 수용은 생활공동체의 안정된 문화적 동질성이 유지되는 삶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변화의 한도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전통과 변화의 상호교섭이라는 존재론적인 주제에 대한 의문을 우리를 인도한다.

경제와 사회의 제면에서 짧은 기간동안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겪어왔고 걸잡을 수 없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와중에서 전래의 생활공동체의 해체를 맞게된 우리사회 성원들이 가지는 전통에의 회귀에 대한 감수성은 자못 별다른 바가 있을 수도 있다. 허나 전통사회와 근대사회 혹은 전통인과 근대인으로 대비되는 개념은 일찌기 현대 과학문명의 선두주자가 된 서구사회의 문화에 접해서 새로운 문화의 수용과 자체의 변용을 서두를 수 밖에 없었던 서구이외의 문화권에서 당면해야만 했던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반의 문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문화권에서 다른 시대마다 어떠한 용어를 빌어 표현되던간에 한 사회에서 당시까지 하나의 틀을 갖추어 축적되어온 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의 물결은 기존의 틀의 안정적인 유지에 대한 위협이며 후자는 전자에 대한 강제 변화의 촉매였었다. 우리사회가 근래에 겪어야 했던 강력한 근대화와의 지향성과 이에 반사적으로 작용하는 전통사회에 대한 향수는 그 이전에도

우리사회가 겪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부닥쳐야하는 생활공동체의 집합적 자아의 양면을 이루는 전통적자아와 근대적자아의 상충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생활공동체 성원 각자의 속에는 자신을 하나의 사회인으로 틀지워준 문화의 속성에 집착하려는 전통인과 새로운 문화의 가치를 수용하여 기존의 틀을 대치하려는 근대인이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공동체 성원들에게 문화적 동질성과 지속성의 느낌을 전달하는 주요한 매체는 그 구성원들에게 역사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주위의 생활환경이다. 역사적인 의미를 간직하는 환경과 그 안의 건물들은 현대의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전통적 뿌리와 만나게되는 상징적인 교차점이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이 견디어내기 힘들 정도로 진행되는 변화의 범위와 속도 즉 그들의 생활환경과 역사적 건물들의 파괴는 전통의 존재론적인 부정에 가까운 것이다. 역사적인 환경이나 인근에 새로운 건물들을 짓는 것도 역사적인 건물들과 그 환경의 직접적인 파괴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활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반복적으로 그들의 근원에 회귀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유지해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환경은 일상의 생활속에 물질적으로 시현됨을 통해서 그들의 시원으로의 연결을 보장하는 세계의 중심에 해당한다. 한 생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견디어낼 수 없을 정도의 속도와 범위를 가진 변화는 이 중심의 박탈을 의미하며 결국에는 그들의 삶과 근원사이의 단절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전통의 파괴이며 전통의 파괴는 그 생활공동체의 존재론적인 박탈이라 할 수 있다. 이 변화를 조절하고 역사적인 건물들과 그 환경의 파괴를 막기위해 보존과 보전이라는 강제적 과정이 도입된다. 역사적인 지역이나 그 인근에 새 건물들을 짓거나 새 대상물을 놓는것은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건축물로 인하여 역사적인 건물과 그 환경에 미치게 되는 영향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근간에 전통과 보존내지 보전에 대한 의미가 역사의 한 가운데 오늘의 삶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사전적 의미 이상의 무엇을 뜻하는지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그것은 경복궁의 복원과 더불어 거론되고 있는 옛 조선총독부 청사의 처리에 대한 일반인, 전문가, 문화계 인사와 담당 당국자들 사이에 일고 있는 토론과 발의가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서울의 북촌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50-100년 된 한식 가옥군을 보존하기위해 1984년에 설정되었던 한옥보존지구가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일부 전문가들의 건의에 따라 급기야는 보존지구의 해체에 까지 이르게되었고, 일부 건축가들은 보존지역의 개발계획을 시범적으로 제시하여 주민들 및 전문가들과 함께 역사지역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과 토론을 전개하기에 까지 이른 일련의 과정이다. 이 두가지 사안은 종결된 과거의 일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기존환경과 새 건축의 관계가 자아내는 건축생성의 과정이다. 단지 두 지역은 우리의 역사적 사건내지 우리사회의 지나온 흔적을 원형대로 간직한 물증들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 구 건축요소의 대립이 사회적인 관심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위의 두경우의 활발한 논의의 전개는 한편으로 우리의 전통 또는 문화환경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높아진 인식이 보다 넓게 사회 성원들간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생활환경의 신, 구 대립에 있어 생활공동체 성원들사이에 문화적 동의를 창출해내는 성숙된 협의의 통로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었다. 생활공동체의 생활환경에 대한 문화적 동의에 이르는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이해가 보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연결된 속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기존환경과 새건축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앞서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을 마련한 연후에야 문화적 동의를 위한 과정에 대한 전망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통이라는 터부

한국 건축계에서 전통문제를 논의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치 건축이라는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이 거쳐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는 돌무더기처럼 일단의 건축여행자들이 지날때마다 전통이라는 돌무더기는 커지기만 한다. 돌을 던짐으로써 액운이 떨어진다는 터부를 굳이 깨야할 이유가 없는 한 누구나 한두번씩은 돌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지나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전통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간에 이 터부에 대한 조바심과 찻찻한 구석을 치워버리고 좀더 자연스럽게 가벼운 마음으로 건축이라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통이라는 터부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알몸을 들어낸 귀신의 모습을 보았다해서 전통을 다시 신비화하는 사람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전통지향성이 궁극적으로 생활공동체 성원들에 의한 존재의 표출형식중의 하나인 한에는 인간사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인위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신비화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아야겠다.

전통에 대한 신비화의 작업은 세가지 오류를 동반하며 진행된다. 첫째는 전통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하루하루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라는 핵심을 빠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바로 전통에 대한 구구한 억측과 주장의 반복을 낳는다. 삶의 본질적인 문제와 격리된 논의가 가져야 할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두번째로 전통에 대한 논의가 일부 식자들 내지는 문화주의자들간에 폐쇄된 회로에서 맴돈다. 여염집 사람들 하나 하나에 관계된 삶의 문제를 외면한 원형의 무한 폐쇄회로를 맴도는 전통의 이해와

전통 논의가 발전적인 건축행위에 일조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터부로서 건축인들의 발목을 잡는 역기능을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터부로 변질하고 있는 전통이라는 신비체의 베일을 벗겨야 한다.

오늘 삶속에 살아있지 않고 죽은 생활공간을 전통이라고 주기적으로 되뇌이는 것은 마치 죽은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논의는 인간의 삶의 세계에 진입할 확률이 적으며 삶과 분리된 신비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번째 오류는 앞서 지적한 오류들의 당연한 귀결이다. 사회성원들의 삶과 유리된 채 폐쇄회로를 맴도는 전통 논의는 건축인의 실천단계로 이어지기가 어렵기 마련이다.

만약에 전통에 대한 논의가 오늘의 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이 공감하는 건축행위를 고무하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면 허구화된 신비체계로 몰아칠 수 없다. 다만, 전통논의의 과정이 오늘의 삶에서 격리된 채 생활공동체 구성원의 공감에서 외면하여 일부 폐쇄된 사회에서만 유용한 언어로 반복 재생된다면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전통논의가 건축인들이 거부하게 여기는 터부로 변질하게 된다. 모든 터부는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체적 삶의 본질과 유리되고 오늘의 현실적 삶에 방해가 되는 터부는 깨어져야 한다.

전통 논의가 발전적인 건축행위에 일조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터부로서 건축인들의 발목을 잡는 역기능을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터부로 변질하고 있는 전통이라는 신비체의 베일을 벗겨야 한다.

오늘의 삶속에 살아있지 않고 죽은 생활공간을 전통이라고 주기적으로 되뇌이는 것은 마치 죽은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전통이라는 위패를 모시고 지내는 건축인의 제사는 오늘의 삶을 담는 현재의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를 푸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생활환경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허구 많은 의식중의 하나일 뿐이다. 만약에 사랑채와 안채를 나누고 여러 마당으로 공간을 분할하는게 우리 건축의 전통이라 생각하거나 사찰건축이나 서원건축에서 보이는 공간의 위계적 변위 또는 목조 건축의 기법들이 우리 건축의 전통이라 말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반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동네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거나 우리 이웃들이 그러한 건축환경에서 살고 있거나 또는 건축전문인으로서의 건축행위 속에 그러한 건축공간이 만들어 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위에서 예를 든 것들은 우리의 전통사회의 건축양식 혹은 전통건축양식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건축적 전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은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어떤 것이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이 현재의 우리들의 삶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건축환경의 모습일 뿐이다. 만약에, 전통이 살아있는 것이고 전통적인 건축도 우리의 공동체적 삶속에 서식하는 생명체라면 이미 죽어버린 건축환경은 건축적으로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의 문화권 속에서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아 살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 오던

문화적 전통은 다 죽어 없어지고 육신만 살아 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현대의 로봇처럼 인공두뇌를 갈아끼울 수 있는 것이 아닌한 우리 선대의 문화적 전통이 모두 없어져 다른것으로 대체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어떤 부분은 퇴화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질적인 문화와의 습합을 통해 변형되거나 새로운 생활의 필요에 따라 이질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것이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육신만 물려받고 정신은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전통은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살아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첫번째와 두번째 의문의 답이 서로 상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코 전통은 완전히 소멸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한국건축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죽어 없어졌다 하는 것이다. 이 모순은 두개의 답중 어느 하나라도 틀렸거나 아니면 다른데에 연유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두개의 답이 다 맞다면 우리가 한국 건축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한국건축의 전통이 아닌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안목이 모자라거나 짧은 기간동안 너무 변화가 심하여 어떻게 변했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경우다. 바로 전통은 볼수도 없는 것이고 만질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내재율이 있거나 위계적 질서 또는 내외공간의 상호관입 등 어느 문화권의 건축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반화 하는데 대해 우리 건축인은 내심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잘 보이지않는 것일수록 보이는 것으로부터 추출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살던 건축공간을 보고 그것 자체를 한국건축의 전통이라 하거나 또는 그 옛 건축이 가지고 있는 건축공간의 구성원리를 오늘의 생활공동체 생활환경과 연계성을 간과한 채 한국건축의 전통이라고 정적으로 설명하려는데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다.

지나간 시기의 건축환경이 전통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생활공간속에 그리고 건축행위속에 조상들의 건축공간과의 연계가 어떻게 살아 남아 있는가 하는것이 한국건축의 전통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시기의 건축을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건축의 전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 생활공간에서 한국 건축의 전통을 찾아 내기 위한 작업중의 하나일 것이다. 오늘의 생활공간과 지나간 시기들의 생활공간을 생태적으로, 연속적인 현상으로 묶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 건축의 전통을 설명해낼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겨두기로 해야겠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전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하고 있고 생성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개방체계로서의 문화속에서 전통의 이해가 단답형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한국건축의

전통은 지나간 시대의 건축적 유산에있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오늘의 생활공간속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 건축의 전통은 옛 건축에서 찾아질 수 없다. 단지 옛 건축은 오늘의 생활환경에 숨어 있는 한국건축의 전통을 비추어 주는 거울일 따름이다.

3. 전통의 수평적 차원

전통을 찾는 참 이유는 건축의 양식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지식인 또는 문화인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것도 아니며 어떤 객관적인 지식체계를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수적인 이유야 될 수는 있어도 전통을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동기에는 못미친다. 이것은 오히려 여염집 사람들의 오늘의 삶의 문제에 직결된다. 우리자신들도 일상생활속에서 익히 체험하는 삶의 일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외래 문화가 덮쳐와서든지 또는 도시산업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것이 변하는 속에서 지구적 삶에 뿌리를 내리려는 생활인의 본능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먼 여행에서 돌아오거나 하루중에 외출했다 귀가 했을때 우리가 익히 사용해왔던 방의 가구들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거나 책상위의 책이나 물건들이 늘 놓던대로 놓여있지 않으면 생소해져 예전처럼 다시 제자리로 복원시키거나 참아서 변해진 상황에 적응하여 익숙해 지기를 기다려서 다시 편해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의해 둘러쌓이지 않고서는 편히 살수 없다. 더불어 같이사는 사람들도 어떤 이유로든 나와 연관되어있지 않으면 소외감을 갖게 된다. 가까이든 멀리든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망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게 된다. 사람들이 공동사회를 이루어 살수 밖에 없는 것은 삶의 원초적 조건이라 하겠다.

공동사회의 성원들은 믿음과 의식, 제도와 생활방식, 가치체계와 기억 등을 서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전세대의 사람들과도 공유하는 바를 가질때 우리의 삶은 확고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 전통이란 인간존재의 문화적 차원에 해당하고, 인간 존재의 집합적 차원은 생활공동체로 확장된다.

건축에서 전통이라함은 생활공동체 성원간에 생활환경에 대한 공통의 교감하는 바가 있음을 전제로한다. 만약에 생활공동체 성원간에 전세대의 생활공간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면 서로 교감하는 바는 가장 확실하며 지속적이며 교감하는 범위의 영역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생활공간에서 우리가 찾고자하는 전통은 인간존재의 집합적 및 문화적 차원에서의 필연적 요건이라 하겠다. 공동체적 삶의 존재는 수평적으로 현재의 이웃들과 연속되어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앞서 산 사람들과 뒤에 올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이라는 사실에 연관된다.

사람의 생활공간 또한 공동체적 삶의 문화현상이라 할때 존재론적인 지평에서 수직적으로 지속적이며,

수평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하겠다. 대체로 전통을 논의할때 시간의 수직적 진행방향 또는 시간의 단선적인 방향의 흐름에 치중하여 문화수용의 지속성으로 이해하여 온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통은 오늘을 같이 살아가는 공동사회 성원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오늘에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수직적인 속성을 가지는 문화현상으로 본 전통은 공동사회 성원간에 그에 대한 공감대를 오늘에 형성하고 있지않다면 죽지않고 삶속에 살아 있을 수가 없다.

소위 말하는 일부 문화주의자들, 학자들, 전문가들, 엘리트들의 고양된 의식속에서만 체계화되고 주장되는 전통은 일부의 희망 사항이고 바람일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삶속에 살아있는 생활공동체의 성원들간에 공유되는 의식속에 살아있지 않는한 어떻게 말해지는 전통도 그것은 허구이고 모형에 불과하다. 이것은 학문적 관심 이상으로 하루 하루의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 하나하나에 결부된 절실한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인 것이다.

오늘의 도시산업 사회에서는 모든것이 안정된 삶의 준거들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전통은 개개인의 생존의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집합적 수준의 생활공동체의 차원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생활공동체 내에서의 사람들의 관계는 물론 생활환경의 모든 면이 그속에 삶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과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안정된 준거들을 변하지 않는 어떤 것에서 찾고자 하기 마련이다.

종교적으로는 초월적 존재일 수 있고 문화적으로는 오늘의 생활상의 바탕이라 생각되는 지나간 시기의 전통문화이다. 문화적인 지속성이란 오늘과 단절된 과거의 유물에서 찾을 수 있는게 아니고 오늘의 생활속에서 찾아야 함을 잊기가 쉽다. 오늘의 삶속에 있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남아 있는 전통적 생활환경의 유구에 살고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 또는 어느 개인이 전통건축을 소유할 수 있는것도 아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사회성원들간에 생활을 통해서 공유하는 바가 있어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아직도 간장이라는 조미료를 집집마다 쓰고 있으며 간장을 음식맛의 요소로하는 식생활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이것은 전통적인 식생활의 일부가 오늘에 살아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만약 집집마다 아침밥을 먹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을 대부분의 가구에서 먹고 있다면 전래의 전통적 식생활은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생활의 전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집집마다 있게 마련이던 장독대가 오늘의 생활환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 전래의 전통적인 생활공간은 변해가고 있는 것이며 슈퍼마켓의 장독병 진열대가 이 기능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어지는 생활공간속에 장독대를 억지로 갖다 놓는다고 전통이 이어지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오늘까지 남향선호 성향이 주거공간에 대한 관습과 실생활에서의 주거 선택의 우선 순위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전래의 전통의 생활공간 개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오늘의 콘크리트 건물에 포장을 한다면 이는 전통 건축양식의 건물일 뿐이지 몇몇이 그렇게 집을 지었다해서 오늘날에 전통 건축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것도 아니다. 이미 오늘의 생활속에서 용도폐기된 것을 복원한다고 전통이 살아날 리는 없다. 생활공동체 성원들이 오늘의 생활의 필요에 따라 채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복고취미는 될지언정 전통적인 삶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오늘까지 남향선호 성향이 주거공간에 대한 관습과 실생활에서의 주거 선택의 우선 순위로 되어있다면 이것은 전래의 전통의 생활공간 개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오늘의 콘크리트 건물에 포장을 한다면 이는 전통건축양식의 건물일 뿐이지 몇몇이 그렇게 집을 지었다해서 오늘날에 전통건축이 이어져오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집의 재료와 모양이 매우 달라도 안방과 마루 및 건넌방의 쓰임새가 지나간 시기와 동등한 관계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면 전통건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의 수평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시간의 수직적 또는 역사적 흐름속에서의 전통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어차피 수직, 수평의 차원은 전통의 의미를 구성하는 상보적 속성이다. 그러나 전통을 시간의 흐름속에 내재하는 변화의 관점에서만 바라볼때 전통이 뿌리를 내리야 할 땅을 잃게 된다. 그 땅은 바로 전통을 문제로 삼는 오늘에 삶을 이어가고 있는 생활공동체이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속에 살아 있지 않고 그들에 의해 공감되지 않는 것은 전통이라 불리울 수 없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적 동의를 도외시한 전통은 죽은 전통이고 따라서 그들의 삶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한국건축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4. 기존과 새것의 변증법

생활공동체에서 전통의 문제는 하나의 건물의 양식에 관한 문제일 수 없다. 한 생활공동체의 생활환경에 새로운 건축이 하나의 환경적 요소로 간섭할때 불가결하게 해결 되어야 할 것은 기존과 새로운 침입자 사이의 갈등의 해소이다. 이것은 반드시 근대와 구분되는 지난 시기의 건축환경을 일컫는 역사적 장소에 새건축이 들어서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생활공동체의 생활환경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어떤 생활환경이던 시간의 축적이 동반되지 않은 단위 생활공간들의 집합체는 없다. 그래서 전통은 보편성의 지평에서 기존의 생활환경의 내용(Context)과 이 속에 새로 편입되는 생활환경요소가 가지게 되는 어떤 관계의 문제로 일반화 되어질 수 있다.

기존의 환경과 새 건축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그 생활공동체 성원들의 이에 대한 이해에 좌우된다. 기존 환경속에서의 새 건축에 대한 해석은 집합적 수준에서의 문화적 동의에 버금간다. 문화적 동의란 이미 지어진 새 건물을 평가하는 것 뿐만아니라 앞으로 닥아올 건축적 간섭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의 성격이 그 간섭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면 기존의 환경은 하나의 절대적인 잣대로만 이해 될 수 없다. 새것과 기존간의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재 해석이 요구된다. 하나의 확정적인 해석이 문화적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기 위한 적절한 소통의 과정만이 의도적 개입과 그것이 생활환경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통제 조절에 관한 문제는 그 콘텍스트가 어떠하였었고 이것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의 양쪽 관점에서 정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콘텍스트의 지속성에의 적합한 간섭으로 귀결된다.

생활공동체 구성원간에 문화적 동의가 없이는 전통과 변화사이의 접촉의 과정은 방향을 잃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활공동체의 생활환경의 형성에 있어 전통에 의존하는 것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 사이의 적절한 교섭과정이 무엇이었는가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생활환경은 기존 환경에 지어지는 새로운 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재해석 되어질수 밖에 없다. 새로운 생활환경은 새건축 아니면 기존의 환경이라는 배타적인 관점에서는 적절히 평가 될 수 없다. 새건축과 기존환경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는 과정은 생활공동체 성원들이 직접 간섭으로 관여하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다. 우리는 편의상 그 과정을 무작위과정과 조직된 과정으로 구별할 수 있고 조직된 과정은 다시 자발적과정과 제도화된 과정으로 구분 할 수 있다.⁷⁾ 여기서 무작위 과정은 비교적 조직되지 않고, 비지속적이며 다소 상황에 따른 개인들의 반사적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동의를 형성해가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 조직된 과정은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집단적인 추구에 가깝다. 무작위 과정이 반드시 무의식적인 노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작위 반응이 축적되면 이 과정은 자발적 과정의 탄생을 자극하고 제도화된 과정을 이끈다. 제도화된 과정은 법적인 수단의 지원을 받는 모든 종류의 공공적 조직의 활동을 말하며 새건축과 기존환경의 관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평가하고 여론을 측정하고 걸르고 홍보하는 체계화된 과정을 일컫는다. 자발적과정은 생활공동체에서 관이 아닌 임의 단체에 의해 또는 사회성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활동을 말한다. 자발적 과정은 법적인 제도에 의해 받쳐지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화된 과정과 다르다. 비록 자발적 과정은 제도화된 과정보다 실천적 속성에 약할지 모르지만 제도화된 과정의 방향을 비판하고 안내자 역할도 해낸다. 이들 무작위와 조직 또는 자발적 과정과 제도화된 과정은 어느 한정된 경우들에서는 서로 대립적이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정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생활공동체의 생활환경에서 기존환경과 새 건축의 대치 대립하는 상황은 반드시 대중매체를 통해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어떤 특수한 경우들만에 해당되는 것이아니라 건축행위 자체가 가지는 원초적 속성이다. 전통이 운위되는 생활환경의 긴장상태는 생활공동체

생활환경에서의 건축환경의 신, 구의 대치라는 건축행위의 보편적 상황의 특수한 경우 일 뿐이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문제의 주제를 더 명확히 들어내기 위해 우리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역사적 환경의 보존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 되었던 경우들로부터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1967년의 부여박물관 신축때의 건축양식에 대한 시비, 1971에 있었던 경북공안에 지어지는 국립 중앙박물관의 건축양식에 관한 논의, 1976년의 성산고갯도로 설치로 인해 독립문의 위치 변경에 따른 여론, 1987년에 올림픽 공원내의 몽촌토성 일곽에 올림픽 문화행사의 하나로 유치하려 했던 국제 야외조각 전시회를 계기로 문화유산 파괴에 대한 비등한 여론의 비판 등의 사건은 전통건축 문화유산의 보존과 새로운 건축행위가 대치하여 벌어졌던 생활공동체 생활환경의 신, 구 콘텍스트의 교섭과정이었다. 이러한 계기들은 많은 대가를 치루었지만 생활공동체 성원들에게 생활환경에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으며 문화적 동의를 찾아가는 방법을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87년부터 서울시가 주관하여 계속되고 있는 구 서대문 교도소의 사적지회 및 사적공원화 계획은 그 실천 단계에서 보존과 새로운 환경요소들의 도입이라는 양립시켜야만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은 물론 각각의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 각 구성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문화적 동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전에 비해 상당히 세련된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건화되었던 건축환경에서 전통보존의 문제 또는 보편적인 일반화된 개념으로 얘기하면 생활공동체 생활환경에서의 생활공간의 신, 구 대립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성숙되어있지 못함을 말해준다.

위의 경우 모두에서 결여된 것은 공공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들 경우에 있어 논의에 관여한 대다수는 전문 직업인, 학자, 관리 등 이었으며 이는 기존 생활환경속에서의 새 건축에 대한 평가가 도시 중산층의 가치관에서도 거리감을 유지한 채 일부 열은 전문가층에 국한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예로든 사건들의 전말이 보여주는 결과는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기존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사회의 전반에 걸치는 사회집단들의 지지없이 어렵다는 것이다. 협의의 과정이 의회 민주주의의 마저 허락되지 않는 폐쇄된 행정적 절차라는 짧은 통로안에만 머문다. 이것은 더더욱 풀 뿌리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예들은 사회 성원들이 그들의 생활환경안에 문화적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말해준다. 반면 식자들과 문화인들은 생활공동체의 갈망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었다. 무작위 과정은 자발적 보존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무작위 과정들의 즉흥적인 결합이 잘못된 제도적 과정을 보정하는 주된 동력이 되었었다. 자발적 활동들은

(註)
기존의 환경과 새 건축의 관계에 있어 문화적동의에 도달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논의가 우리사회에서 사회문제화 되었던 사건들의 분석적 이해를 통해서 제기된 바 있다.
Jeong - Keun Lee, Process towards Cultural Consensus for New Buildings on Historic Sites (Thesis presented for The Symposium on Preservation and Modernization of Historic Cites, Beijing, China, 15 - 18 August 1990)

아직 제도화된 과정에 대치되는 상보적 힘으로 작용되지 못하고 오로지 제도화된 과정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옥 보존지구와 몽촌토성 보존을 위한 시민들의 반응에서 자발적운동의 태동을 볼 수 있었다. 자발적 활동들은 아직도 개인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의 보호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듯 싶다.

바람직한 것은 무작위적 과정이 문화적 동일성에 대한 고양된 집합적 의식의 힘으로 자발적 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자발적 과정의 함양이 없이는 제도화된 과정은 사이버 문화적동의를 길들여지고 맞추어지는 것 같다. 무작위과정이 불확실하다면 제도화된 과정은 경직하기 마련이다. 자발적인 과정의 가시화는 신, 구의 대화속에 문화적 동의를 찾아내는 길을 조화롭게 조절해 줄 것이다. 상보적 과정들의 적절한 어울림이 유사 문화적 동의에 균형 감각을 붙여 넣어야 한다.

5. 전통과 문화적 동의

우리는 전통에 대한 앞선 논의에서 전통의 문제는 어제的问题가 아니고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늘의 문제이며 다른 사람들이 살던 어떤 곳이나 지금 어떤 곳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생활공동체가 존재하는 이곳, 여기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전통은 어느 개인의 문제일 수 없으며 더더욱 불특정 다수 개인의 문제의 집합일 수 없다. 이것은 오늘 여기에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전통은 모든것이 항상변하는 세계속에서 삶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생활공동체 성원들의 집합적 차원에서의 존재론적인 갈구의 표현이다. 따라서 전통은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수직적 차원에서만 간파될 수 없는 오늘 여기에 사는 생활공동체 사람들의 수평적 차원에서의 공감의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오늘 여기에 사는 생활공동체 다수의 사람들간에 공감의 요구 되는 수평축에서의 집합적 차원의 문제 일 뿐 아니라 수직축에서도 지나간 사람들이 살던 생활공동체와 오늘의 생활공동체 간의 집합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기존의 건축환경과 새로운 건축의 관계라는 문제는 역사가 오래되었던 아니던간에 모든 생활공간에 동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옛 문화의 족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나 역사적인 어떤 시기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생활환경이 있다면 그곳에 새로운 건축을 어느정도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사회적인 여론의 초점이 되곤 한다. 근래에 일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서울의 한옥보존지구의 지정으로부터 이를 다시 해제하기까지의 경과와 다시 이를 해제 하였을 경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건축가들의 제안과 주민들의 반응, 전문가들의 견해 등등의 교환이있었다.

역사상 한 시기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환경의

보존이라는 면과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대치하는 가운데 기존환경과 새 건축간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존환경과 새 건축간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동의는 구태의연하게 상의하달식의 제도화된 과정속에 쉽게 구해질 수 없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주민들 및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과정의 대두는 비록 시간이 걸리고 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보다 안정되고 억지가 아닌 참된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기 위한 건전한 틀의 형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건축환경과 새건축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관계는 긴장상태를 유발하고 긴장의 해소를 통해 새로운 평형관계에 도달하며 다시 새로운 갈등관계를 맞게되는 계속되는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적 상황전개를 나타낸다. 호메오스타시스적 상황전개는 개방체계로서 상호의 과정들이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교섭되도록 그 균형된 교섭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존환경과 새건축의 교섭과정의 통로를 어느 한쪽에서 틀지어 놓는다는 것은 폐쇄된 체계를 이루는 것이며 폐쇄된 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활환경은 어느쪽으로든 불균형의 왜곡된 생활공간을 낳게 될 것이다.

최근에 한국의 문화계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경복궁의 복원과 옛 조선총독부 청사의 철거 문제에 있어서도 호메오스타시스 적인 기존환경과 새건축의 교섭을 하나의 아데올로기적 관점에서 틀지우려는 경향이 나타났었다. 일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기존환경과 새건축 관계의 커다란 왜곡에 덧붙여서 우리도 악수에 악수를 거듭 덧 붙여왔다.

이러한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호메오스타시스적인 개방체계내에 관점들의 교섭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서 균형잡힌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달성되는 것이다. 하나의 아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문화적 동의의 윤곽을 틀지우려는 노력은 하나의 왜곡을 더 큰 왜곡으로 확대할 뿐이다.

제도적 과정에 편승하여 문화적 동의를 조작하려는 아데올로기를 견제하며 기존 생활환경과 새건축의 균형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발적 과정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부닥뜨리는 전통의 문제는 기존의 생활환경과 새건축의 관계를 미리 결정하려드는 아데올로기의 싸움이 아니며 생활공동체 성원간에 문화적 동의를 구하여가는 삶속에 이어지는 과정의 한 단면일 뿐이다.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기 위한 자발적 과정을 발양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은 먼저 전통에 대한 근본시각을 이의 보편적 의미에서 찾는 것이다. 전통의 보편적 의미를 회복하는데 시급한 문제는 생활공동체 성원들이 가지는 집합적 자아로서의 전통에 대한 의식과 그들의 삶과 결부된 수평적 차원에서의 전통의 의미를 되살려 내는 것이다.